

# 재수생·반수생 몰린 6월 모평... “객관적 위치 확인 기회”

졸업생 응시자 비율 19.8%  
수능 1등급 65.7%가 N수생  
‘사탐런’ 가속에 점수 예측 안갯속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해 6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4일 전국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졸업생 접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3 재학생들이 처음으로 대규모 N수생과 경쟁하는 시험이 될 전망이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지원자는 총 48만8343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9만1412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6931명이다. 졸업생 접수자는 지난해보다 7044명 늘었으며 전체 지원자 중 비율도 19.8%로 높아졌다.

이번 모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졸업생 유입이다. 2011학년도 이후 평가원이 공개한 6월 모의평가 통계 기준으로 졸업생 접수자 수와 비율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제 상위권 경쟁에서 졸업생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수험생 가운데 졸업생 비율은 65.7%에 달했다. 2등급대에서도 졸업생 비율은 57.7%로 과반을 넘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처음으로 동일한 시험에서 경쟁하며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며 “특히 올해는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재학생들은 교육청 학력평가 성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수능에서는 N수생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와 본수능 졸업생 접수자 차이를 근거로 약 9만2000명의 반수생이 추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도 대학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반수생이 본격 가세하면서 본수능에서는 9만~10만명 수준의 반수생이 추가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이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사회탐구 선택 비율은 66.2%로 2025학년도 51.2%, 2026학년도 59.0%에 이어 2년 만에 15%포인트(p) 이상 늘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며 “성적을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빠르게 일상적인 학습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공부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사탐 전환이 모든 과목의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2년 연속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탐에서 사탐으로 전환한 수험생의 80.7%는 탐구 백분위가 5점 이상 상승했다. 반면 국어와 수학 성적 향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며 “성적을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빠르게 일상적인 학습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공부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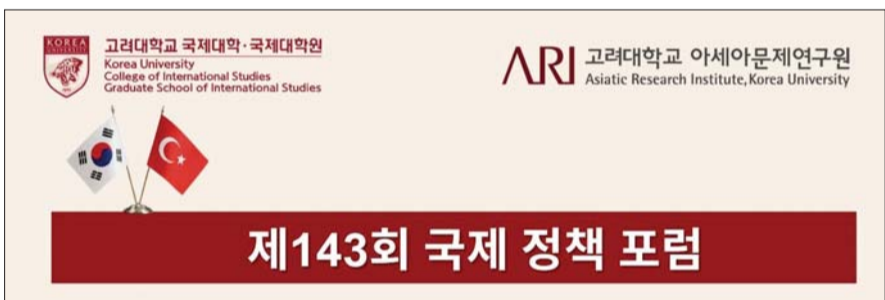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결과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며 “성적을 확인한 뒤에는 최대한 빠르게 일상적인 학습 흐름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시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능 공부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lhj@metroseoul.co.kr metro



## 튀르키예 외교장관, 고려대서 특별강연

고려대, 국제정책포럼 오늘 개최  
‘튀르키예 외교전략’ 관련 특강



고려대 국제 정책 포럼 이미지.

튀르키예 외교를 총괄하는 하칸 피단(Hakan Fidan) 외교부 장관이 고려대학교를 찾아 글로벌 정세 변화 속 튀르키예의 역할과 한-튀르키예 협력 방안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선다.

고려대학교는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포럼(이사장 김병기)이 아세아문제연구원(원장 이진한), 주한 튀르키예대사관과 공동으로 4일 오후 3시4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 214호에서 제143회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1997년 출범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책포럼은 올해로 143회를 맞은 국제정책·외교 분야 학술 정책 플랫폼이다. 국내외 전·현직 고위 관료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언론계 및 민사사회 인사 등을 초청해 국제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튀르키예 외교 수장인 하칸 피단 장관이 연사로 참석해 ‘글로벌 맥락에서의 튀르키예의 부상과 한국에의 시사점(Rise of Turkey in the Global Context and Implications for Korea)’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중동과 유럽,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튀르키예의 외교 전략과 국제적 위상 변화, 한국과 튀르키예 간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진다.

행사는 김병기 국제정책포럼 이사장 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진한 아세아문제연구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하칸 피단 장관의 특별 강연과 질의응답, 기념촬영이 예정돼 있다.

특별 강연 사회는 김병기 교수가 맡는다. 김 교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아시아 최고 안보회의인 아시안 시큐리티 서밋(Asian Security Summit)의 창립 한국 대표로 활동하며 한국 장관급 인사들의 참여를 이끈 바 있다.

/이현진 기자

## 가정 밖 청소년에 연 300만원 장학금

서울시, 장학사업 확대 개편

가정폭력과 학대, 가정 해체 등으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용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장학사업을 확대 개편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올해 첫 장학생을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모집과 5월 심사를 거쳐 총 11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가정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념이라면,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와 분리돼 생활하는 주거·보호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1인당 연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2회에 걸쳐 지원되며 1차는 지난달 지급됐고, 2차는 성장보고서 제출 이후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장학생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초 역량 강화 교육과 경제교육을 제공해 학업 지원뿐 아니라 자립 준비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등 총 19개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생활하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이 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취업·정신건강 지원까지 연계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안성시, ‘별이야 페스티벌’ 내일 개최

스타필드 안성 안팎 프로그램 마련

안성시가 지역 전통문화와 미래 농축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두 개의 사업을 잇달아 추진한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청년 축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안성시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에서 ‘2026 안성문화장×스타필드 안성 별이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 3대 장터로 꼽혔던 안성장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예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새롭게 구성한 지역 대표 문화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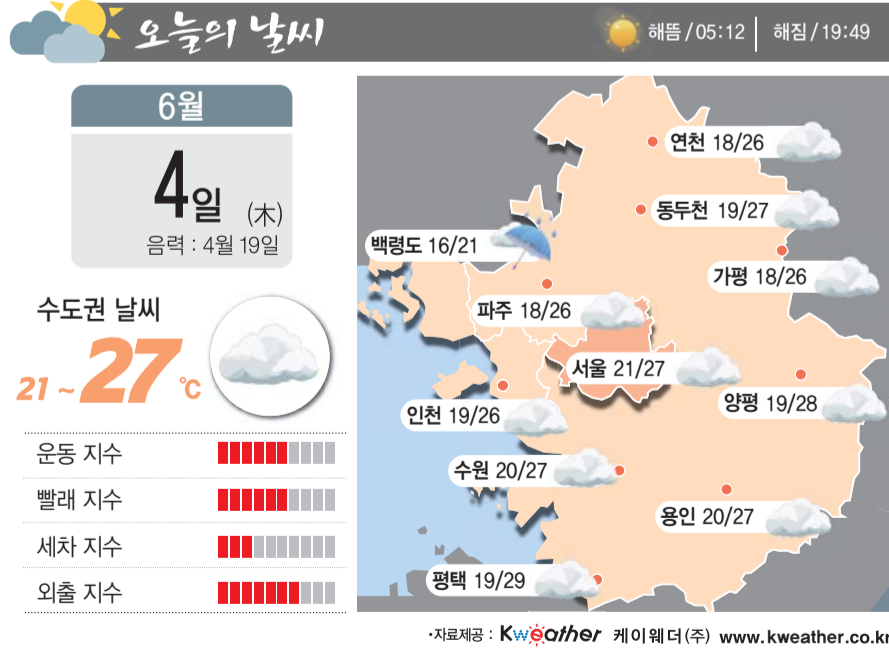
축제 기간에는 스타필드 안성 안팎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화장인들의 공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부스를 비롯해 문화상단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지역 농축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야시장 형태의 푸드트럭존도 조성된다. 시민과 가족 단

위 방문객을 위한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안성시는 이번 축제가 지역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장터의 의미를 현대적 문화 콘텐츠로 확장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오는 12일까지 ‘안성 청년 축산리더 ALL 300’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메트로 한줄뉴스



▲美법무, 트럼프 지지층 보상 논란 ‘반무기화기금’ 공식 철회  
▲美 “중비민감 품목 의견 받아”...미중 무역위 의견 수렴 /사진 뉴스시스

▲中, 日·필리핀 해양 경계 협상에 연일 비난... “중국 권익 침해”  
▲日 올해 방위백서 초안 “中, 실전능력 향상 기도...종합적 국력으로 대응”

▲中왕이, 英외무에 “폐쇄는 후퇴뿐...중기업 차별 말아야”  
▲이란혁명수비대 “美 5함대 기지 공격”...美 “이란 공격 실패” 반박